

스포츠

8

2019년 7월 24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NFL 델러스, 6조원 육박 4년 연속 구단 가치 1위

(미국 포브스 발표)

미국프로풋볼(NFL) 델러스 카우보이스가 전 세계 프로 스포츠 구단 중 최고 가치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포브스는 23일(한국시간) 2019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프로스포츠 구단 50위를 공개했다.

1위는 델러스였다. 포브스가 책정한 델러스의 구단가치는 50억 달러(약 5조 9000억 원)에 이른다. 델러스는 2017년 기준으로 3억6500만 달러(약 4301억 원)의 흑자를 낸 구단이다. 이는 역대 프로스포츠 구단을 통틀어 최고의 흑자 금액. 델러스는 2016년 1위를 차지한 이후 4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NFL은 델러스를 포함,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7위·38억 달러), 뉴욕 자이언츠(공동10위·33억 달러)등 무려 26개 구단이 5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2위는 메이저리그(MLB) 전통의 명문 뉴욕 양키스가 선정됐다. 뉴욕 양키스의 구단 가치는 46억 달러(약 5조4211억 원)로 책정됐다. 양키스는 전년 대비 구단 가치가 15%나 증가해 50위 이내 구단 중 가장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의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42억4000만 달러·약 4조9976억 원)와 FC바르셀로나(40억 2000만 달러·약 4조7383억 원)는 나란히 3, 4위를 차지했다. 이중 바르셀로나는 구단 가치와 별개로 3700만 달러(약 436억 원)의 적자를 냈다. 50위 이내에 이름을 올린 스포츠 구단 중 유일한 적자 구단이다.

미국프로농구(NBA) 뉴욕 닉스는 40억 달러(약 4조7144억 원)로 5위에 올랐다. NBA에서는 LA 레이커스(8위·37억 달러),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9위·35억 달러) 등 3개 팀이 10위 권 내에 포함됐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내일 예비앙 챔피언십 스타트…LPGA 막판 메이저 레이스의 승자는?

‘우승 맛집’ 예비앙을 잡아라

태극양자들과 예비앙 챔피언십	
선수 및 기록	
역대 우승자	신지애(2010년) 박인비(2012년) 김효주(2014년) 전인지(2016년)
역대 최스타	18홀 61타(김효주·2014년)
	36홀 129타(전인지·2016년)
	54홀 194타(전인지·2016년)
	72홀 263타(전인지·2016년)

※ 2013년 메이저대회 승적

박성현, 올 시즌 메이저 무관 한폴이 박인비, 20승·5개 메이저 석권 도전 고진영·이정은6·최혜진도 우승 사냥



박성현



박인비



고진영



이정은6



최혜진

태극양자들의 마지막 메이저 사냥이 시작된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 레이스 대미를 장식할 예비앙 챔피언십과 브리티시여자오픈이 2주 연속 지구촌 골프팬들을 찾는다. 각각 프랑스와 영국에서 막을 올리는 두 대회는 올 시즌 메이저 여왕 판도를 마무리 지을 분수령으로 꼽힌다.

스타트는 25일(한국시간) 프랑스 예비앙 리조트 골프클럽(파71·6523야드)에서 개막하는 예비앙 챔피언십이 끝난다. 총상금 410만 달러(약 48억3000만 원)로 펼쳐지는 이 대회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태극양자들이 2년 주기로 정상을 밟은 바 있다. 2010년 신지애(31·스리본드)를 시작으로 2012년 박인비(31·KB금융그룹), 2014년 김효주(24·롯데), 2016년 전인지(25·KB금융그룹)가 우승 트로피를 품었다.

대회 주요 기록 역시 태극양자들의 차지다. 2013년 메이저 승적 이후 18홀과 36홀, 54홀, 72홀 최스타 기록을 모두 한국 선수들이 작성했다. 김효주가 2014년 최종 4라운드에서 단일 라운드 최소인 61타를 기록했고, 전인지가 2016년 36홀(129타)과 54홀(194타), 72홀(263타) 최

스타 신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대회에선 태극양자들의 우승 명맥이 잠시 끊겼다. 김세영(26·미래에셋)이 막판까지 접전을 벌였지만 안젤라 스탠포드(42·미국)에게 1타 차로 우승을 내줬다.

올해 대회 선봉장은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박성현(26·솔레이)이 맡는다. 올 시즌 2승을 거뒀지만 아직 메이저대회에서 우승이 없는 박성현은 최근 3주 가까이 휴식을 취하면서 예비앙 챔피언십 준비를 모두 마쳤다.

‘골프 여제’ 박인비도 빼놓을 수 없는

우승후보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LPGA 투어 통산 20승은 물론 5개 메이저대회 석권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게 되는 박인비 역시 최근까지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며 몸 상태를 완벽하게 끌어올렸다.

또한 올해 ANA 인스퍼레이션과 US 여자오픈에서 생애 첫 메이저 우승을 차지한 고진영(24·하이트진로)과 이정은(6·23·대방건설) 그리고 세계랭킹 22위 자격으로 출전권을 얻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1인자 최혜진(20·롯데)도 유럽 정복을 노린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일본 경제보복 사태…한일 스포츠 교류 딜레마



김종건의 아날로그 스포츠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로 요즘 한일관계가 아주 나빠졌다. 이전부터 ‘가깝고도 먼 사이’였지만 지금은 역대 최악의 관계를 향해 치달고 있다. 끝이 잘 보이지도 않는다.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해야겠지만 역사인식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의도로 우리 경제를 비신사적으로 공격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민감정을 건드렸기에 해결도 쉽지 않다. 예전 반일, 극일운동, 일본제품 불매운동과는 대응방식이나 본논의 차원이 달라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반일감정의 불통이 스포

츠로 옮겨 붙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스포츠와 정치는 엄연히 분리해야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두부 자르듯이 간단하지 않기에 문제다. 8월 일본에서 전지훈련을 치르기로 한 V리그의 몇몇 구단들은 진행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그동안 V리그 대부분 팀들은 일본 팀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전지훈련 때 숙식 등의 도움을 주고 받았다. 연습경기도 했다. 지난해 충북 제천에서 벌어진 남자부 KOVO컵 때는 일본의 JT썬더스를 초청했다. 요즘이라면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외국인선수가 팀에 합류하는 8월부터 각 팀은 기존 선수들과 집중적으로 손발을 맞춰와야 한다. 그동안은 가까운 일본이 시

차도 없고 플레이스타일도 비슷해서 선호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본 전지훈련을 가야하지만 대중의 사랑과 지지로 먹고사는 스포츠 팀이기에 지금의 상황이 조심스러운 것이다. 남녀 배구국가대표팀도 딜레마에 빠졌다. 대표팀 유니폼은 일본제 아식스다. 마음대로 계약을 파기할 수도 없다. 사실 스포츠계 여기저기에 일본제품은 많이 들어와 있다. 골프도 마찬가지다. 일본제품을 판매하는 몇몇 골프용품 회사들은 현재의 상황이 아주 불편하다. 어느 용품 회사는 7월 말 예정됐던 대외용 이벤트를 고민 끝에 전격적으로 취소했다.

지금의 복잡한 상황은 배구나 골프만의 문제는 아니다. 프로야구는 사정이 또 다르다. 현재 많은 구단이 2월에 일본의 오키나와, 규슈에 캠프를 차리고 최소 보름 이상 전지훈련을 한다. 프로야구단이 그 곳

에 뿌린 돈도 상당하다. 만일 훈련장소를 옮기면 일본의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관계가 좋아지지 않고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경우 프로야구단도 고민해야 한다. 스프링캠프 훈련계획은 몇 개월 전에 확정해야 하기에 준비시간이 많지도 않다.

고민할 사람들은 또 있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만나는 경기에 출전하는 종목의 선수와 감독이다. 국가간의 감정대립과 스포츠의 승패는 별개로 봐주면 좋겠지만 국가대표팀은 국민의 열기를 하나로 모으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존재로 큰 역할을 해왔기에 어쩔 수 없이 부담이 생길 것이다. 물론 이런 때마다 현명하게 행동하고 더욱 투지를 불태워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던 우리 선수들의 ‘일본전 DNA’를 믿기에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 전문기자 marco@donga.com

(09~16년 식약처 생산실적 중 자사 전립소 브랜드 생산실적 기준)

대한민국 1등!

전립소 쏘팔메토 파워

셀레늄 추가로 항산화까지!

전립소 쏘팔메토 파워
특가 프로모션!

전화주문 시
4개월분 구성을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원산지 | 주원료 | 쏘팔메토 열매추출물유지(미국산), 전조호로(캐나다산) | 부원료 | 포도씨앗유(스페인산)

CJ 전립소 쏘팔메토 파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남자들의 고민! 전립선.

CJ 전립소 쏘팔메토 파워로 당신의 활력과 자신감을 찾으세요!

소변고민, 떨어진 자신감
CJ 전립소 쏘팔메토 파워를 추천합니다

- ✓ 잠을자다소변을보기위해서 깨십니까?
- ✓ 배뇨후 2시간 이내 다시 소변을 보십니까?
- ✓ 배뇨후 소변이 남아있는 느낌이 드십니까?
- ✓ 소변줄기가 자주 끊어지고 약하십니까?
- ✓ 소변이 어려울 때 참기 어려우십니까?

〈제품정보와는 상관없는 건강정보입니다〉

소변문제, 전립선 때문인걸 아세요?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방광 크기의 생식기관으로서 중년이 되면 남성호르몬의 변화로 사과만큼 크기가 커져 방광과 요도를 압박하여 여러가지 소변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남성의 자신감까지 잃게 하는 전립선 고민! 더 이상 슬기지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루 빨리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전립선 | 과다하게 커진 전립선

40% 50% 60% 70%

40대 50대 60대 70대

※ 출처 | 대한비뇨기학회(2018년)

CJ 전립소 쏘팔메토 파워가 선택한 쏘팔메토 열매추출물! 체크하세요!

- 미국 FDA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발렌사현의 USPLUS 프리미엄 원료 사용!
- 세계적인 식품 안전 기준인 할랄 코서 인증까지!

소변을 시원하게! 셀레늄 추가로 항산화까지!

- 국내 최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기능성 인정 700명 대상 인체시험을 통해 기능성 원료인 쏘팔메토 열매추출물의 아라/소변속도 개선 확인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셀레늄 추가! 항산화 효소가 풍부하여 체내 세포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비타민 B1, B2, B6, B12 함유로 남성의 에너지와 활력 충전까지
- 중년 남성의 정상적인 면역기능과 세포분열에 꼭 필요한 아연 함유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722-9988

USPLUS 고품질 전립소 쏘팔메토 파워는 전화로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의사와 상담 없이 복용하지 않습니다.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의사와 상담 없이 복용하지 않습니다.)